

“博物館의 活動과 지역사회 生活과의 融和”에 관한 세미나의 기초연설*

개 회 사

Herbert Ganslmayr**

朴 銀 順譯***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은 1974년에 해당기구의 과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定款을 채택하였으며, 이 定款의 제 3 조에서 박물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博物館이란 社會를 위하여, 그리고 社會의 발전을 위하여 奉仕하는 비영리적 常設機關이다.” 이같은 定義를 통해서 박물관의 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의 변천하는 역할에 대한 오랜 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랫동안 전세계의 대부분의 박물관에 대해서 지난 世紀 중에 발전되고 정의되었던 단 하나의 뚜렷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寶物收藏庫라는 개념이었다. 박물관은 과거의 寶物들 즉, 아름답으면서도 체계적은 遺物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의 또 다른 두 가지 주요업무 역시 이러한 遺物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즉, 이 귀중한 遺物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에 박물관 안팎에서 일련의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과연 박물관의 유일한 업무인가의 여부와 그리고 이 업무에 부과된 중요성이 과연 현재까지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에 관한 토의였다. 수행가능한 새로운 업무와 중요성에 관한 이같은 토의 과정에서 박물관의 역할 중 教育的인 측면과 社會的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면 먼저 그 教育的인 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 西獨에 있는 여러 民俗博物館의 研究員들은 이같은 측면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Zeitschrift für Ethnologie*(민족학잡지)라는 정기간행물의 특집권인 “未來의 民俗博物館—그

* 이 글은 “博物館의 活動과 지역사회 生活과의 融和”라는 주제로 1986년 2월에 개최된 세미나의 개최사와 기초연설을 번역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ICOM 아시아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제정을 후원하여 이루어 졌다.

이 글을 『古文化』에 번역 게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白承吉 부장님과 이를 주선해 주신 서울대 박물관 任素宰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필자는 현재 독일 브레멘에 있는 위버제(Ubersee)박물관의 관장이며, ICOM의 理事로 활약하고 있다.

*** 仁川敎大 강사

과제와 목적”에서 표명되었다.¹⁾ 즉, 敎育이란 한편에서는 학교와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차원에서의 정규교육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른바 비정규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敎育공익사업이 전세계에 걸쳐 급속히 확장되므로써 民俗博物館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博物館들이 敎育적인 과제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전세계의 박물관 중에서 이같이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고 따라서 나름대로의 敎育공익사업을 유치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하겠다.

다음, 두번째 측면은 博物館과 社會와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박물관이란 社會와의 유대없이 아름다운 정원 안에 위치하면서 미려하고 유서깊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상아탑이 아니다.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구역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적어도 공립박물관인 경우에는 그 사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박물관의 敎育적인 과제에 대한 토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즉, 박물관은 그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社會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은 사회의 특정계급만을 위하여 세워졌고 유지되고 있는가, 또한 그것들은 오늘날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유럽의 박물관들은 처음에 王室 또는 帝侯 등의 저택안에 유치되었으나, 나중에는 中産層이 전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같은 박물관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그러한 소장품들에 수집된 遺物들의 성격과 그것들을 전시하는 方式, 그리고 유물들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敎育적인 目的과 같은 것들은 障礙要因으로 생각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 고유의 生活樣式이나 그들의 필요성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사회의 어떤 부분, 주로 中産層에 국한된 관심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의 박물관들은 너무나 폐쇄적이었고,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회의 일부 특수층의 관심에 대해서조차도 이바지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中産層의 관심마저도 한정되기 마련이었다.

이같은 박물관들의 태도는 마침내 격론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박물관 역할의 변화가 필연적인 지역들에서 그러하였다. 예를 들면 中南美지역이 그러한 경우였다. 이 지역들에서는 이와 같이 절박한 변화과정에서 박물관의 역할이 무엇이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에서 “오늘날 中南美지역에서의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의제 아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박물관의 과업과 잠재성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선명한 문제가 토론의제로서 대두되었다.

유럽에서도 사태가 그와 유사하게 진전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를테면 1960년대 말의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처럼 학생운동과 특별의회반대운동에 의해 항의가 제기되므로써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컨대 박물관이 보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들은 박물관이 단지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그 社會 안에서, 그리고 그 社會를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변화를 주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곧 박물관이 처한 특수한 사회여건 안에서 박물관의 기능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박물관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敎育적인 기관이

1) 101, 2, 1976, 197~313.

되고자 분명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곧 박물관이 民衆의 여러 문제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民衆의 所望을 인지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관점들을 박물관의 전시에서 설명하여 명료하게 하므로써 일반 대중에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믿어진다. 박물관이란 사회적인 協調와 行爲의 場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²⁾

위에서 논의된 이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教育的인 면과 社會的인 면은 이 회의의 의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되풀이 하전대 첫번째 것인 教育的인 측면을 좀더 강조하고자 한다. 박물관의 活動과 지역사회 生活과의 融和란 한편으로는 박물관의 기본요소와 방침들을 그것이 자리잡은 社會에 보다 근접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곧 보다 나은 전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설전시이건 특별전시이건 간에 모든 전시는 일반 관람객들이 전시의 개념과 기본이념,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심오한 배경정보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꾸며져야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遺物中心의 전시에서 主題中心의 전시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토의가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회의는 1985년 4월 인도네시아유네스코국립위원회 및 인도네시아ICOM국립협회의 공동주최로 “大衆을 위한 博物館政策”이라는 의제 아래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의 배경이념은 전시되는 遺物の 아름다움이나 중요성과 관계 없이 하나의 전시에는 要體가 되는 課題 또는 主題가 있어야 하며, 遺物이란 주로 그 主題 또는 課題를 설명하는데 썩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물이 하나의 藝術品으로서, 또는 그렇게 찬미되는 대상으로서 전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그 遺物を 전시하는 유일한 目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다.

보다 잘된 展示는 보다 나은 交換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일반관람객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展示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부류의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전시회를 기획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안내 사항과 정보를 반드시 추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보다 나은 교육사업을 통해서 보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박물관들은 館內의 안내관람에서부터 공예품과 수공예품의 제작이나 음악 및 연극공연과 같이 즐거움이 넘치는 藝術行事に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교육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전시회와 유물들에 관해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교육사업의 개선에는 外樣만을 치장하는 작업에서와 같은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며, 박물관들은 교육사업의 개선을 하나의 구실로 이용하므로써 보다 더 공개되게 된 것인양 가장 하는 사색도 빈번하다.³⁾ 그러나 교육사업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遺物中心의 展示를 하는 傳統의인 박물관의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물중심의 전시는 다만 보다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팔려지고” 있으며, 확실히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그같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와서는 출품된 遺物에 대해 物神崇拜的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2) H. Hense, *Das Museum als gesellschaftlicher Lernort*, Frankfurt 1985, 45, 46, 237.

3) H. Hense, *Das Museum als gesellschaftlicher Lernort*, Frankfurt 1985, 45, 91, 116.

이러한 방식으로는 새로운 대상그룹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박물관들은 단지 同一한 同好人들에게만 보다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傳統的인 박물관들은 비록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大衆들의 일부라도 방문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존 키나드(John Kinard)는 傳統的인 박물관을 이르러 “自家創造機關”이라고 한다.⁴⁾ 박물관은 진실로 전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박물관이 진실로 社會와의 紐帶라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 즉, “박물관의 活動과 지역사회 生活의 融和”와 같은 의제를 토의하고자 한다면, 또한 박물관의 두번째 업무인 社會的인 측면이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社會的인 측면을 강조한 두가지의 研究論文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들은 각각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발표되었던 것들이다. 첫번째 것은 매우 도전적인 논문으로서 워싱턴에 있는 애나코샤(Anacostia)마을博物館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두번째 것은 브레멘에 있는 위버제(Übersee)박물관의 개념을 설명한 논문이다. 애나코샤마을박물관의 初代館長인 존 키나드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박물관은 앞으로 더 이상 지성적인 엘리트나 예술감식가 그리고 학자에게만 이바지할 수는 없다. 박물관의 관람객들이 계몽되고, 교육받고, 부유한 사람들로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박물관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지역사회에의 봉사라는 저항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기관들은 그 위치를 재고하므로써 이 존경받는 기관들과 그 傳統이 부당하게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眞理를 알기 위하여 보다 完全한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現代人들의 호소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물관은 소극적인 수장가와 지극히 전문화된 학자들로 부터 벗어나서 오늘날의 도전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박물관들은 새로운 방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개체들을 적용하므로써 인종차별·물질적인 풍요·빈곤·주택난·실업·마약·퇴폐하여 가는 도시들·도시계획·교육과 같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제기된 복잡다난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직면하고,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展示에서는 이러한 말쑥 많은 문제들이 歷史上 그것들과 유사한 事例와 나란히 제시되어야 하며, 現代의 여러 문제와 歷史的인 사실들이 서로 유관하게 조직되어야 하겠다. 박물관들은 과거 세대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화의 최전선에서 지도자의 구실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⁵⁾

브레멘에 있는 위버제박물관의 研究員들도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박물관의 업무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위버제박물관은 民俗學과 自然史 및 交易史박물관으로서 19세기 말에 식민지박물관으로 세워진 이래, 지난 10년전 까지만 해도 그 기본이념을 수정하지 않았었다. 그러

4) B.Y. Newson and A.Z. Silver (ed.), *The Art Museum als Educator. A Collection of Studies as Guides to Practice and Policy*, Berkeley, 1978, 186.

5) J.R. Kinard, “Intermediaries between the Museum and the Community”, *The Museum in the Service of Man Today and Tomorrow*, 『제 9회 ICOM총회 論文集』 Paris 1972, 151~156, 152, 153 in: 참조.

나 박물관 건물을 재건하고 수리하게 되면서 박물관에 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인용, 소개하고자 한다.

“現存하는 위기를 고려하고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학적인 상황에 관한 未來의 전망을 예견하면서도 民俗學과 自然科學, 그리고 物質文明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박물관들이 아름답다던가, 흥미롭다던가 또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잘 분류되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하게 기록된 정보를 지닌 유물만을 전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노릇이다. 종합적인 박물관들은 自然과 文化의 발전상과 상호관련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展示를 조합하므로써 일반 대중들이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박물관들은 教育課程을 다음과 같이 유도해야 한다. 첫째, 문제점들을 認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둘째로 발전과 발전의 여러 성향에 대한 批判的인 判斷力을 지니게 해야 하며, 셋째로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류들간의 관계의 발전에 대해 責任感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⁶⁾

다른 박물관들도 이와 유사한 理念들을 동시에 表明하였다. 그러나 특히 미국에서 창안된 개념들은 실효를 거두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에 두 개의 박물관이 설치되어 전세계 지역박물관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예는 뉴욕에 있는 뮤제(MUSE) 즉, 베드포드링컨(Bedford Lincoln)마을박물관이다. 1967년 브룩클린(Brooklyn)아동박물관은 그 건물이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폐관하게 되었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본 결과 뮤제를 발견하였다. 이 박물관의 기본이념은 인근주민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박물관을 찾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뮤제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전시를 實驗하는 場이 되고자 한다. 어린이들은 뮤제에 와서 박물관의 기구들을 사용하고 조작하며, 실험하여 독자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⁷⁾ 그들은 어린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뮤제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博物館이 될 수 있었다.

두번째 예는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Smithsonian)연구소 산하의 한 박물관인 애나코샤(Anacostia)마을박물관이다. 스미소니언연구소의 관리들은 워싱턴의 일부 지역사람들만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文敎部와 함께 1966년에 한 협의회를 주관하였는데, 그 협의회는 “미국에 산재해 있는 5,000개가 넘는 박물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었다.”⁸⁾ 그 이후 이 기구의 사무국장인 딜론 리플리(S. Dilon Ripley)

6) H. Ganslmayr, *M. de la Torre and L. Monreal, Museums: An Investment for Development*, ICOM, Paris 1982, 14 참조.

7) R.A. Madigan, “MUSE: The New Museum in Brooklyn’s Inner City where “Please Touch” is the Motto”, *Museologist* 107, 1968, 1, 15~17, 17 참조.

8) C. Marsh, “A Neighborhood Museum that works”, *Museum News* 47, 1968, 2, 11~16, 12 참조.

박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이 전통적인 건물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즉각적으로 워싱턴의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신청이 쇄도하였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그 지역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애나코샤지역의 요구와 제반조건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애나코샤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한가지 계획과 그 실천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박물관직원의 반이 그 지역출신 사람들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류제가 설립것과 같은 해인 1967년 애나코샤마을박물관도 유사깊은 극장건물을 이용하여 개관하게 되었다.

이 박물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역 주민과 함께 기획되었던 것처럼, 전시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참여는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전시들 중의 하나는 “애나코샤의 이야기, 1817~1895”라는 제목으로 지난 世紀의 애나코샤의 歷史에 관한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이 전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자의 履歷을 쓰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애나코샤 주민들의 대부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전시는 “이것이 아프리카이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것이 되었다. 이 전시는 애나코샤의 흑인주민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그들의 뿌리를 알려 주고, 先祖들의 生活方式를 보여주며, 그 先祖들이 어떻게 노예로서 미국으로 선적되어 실려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애나코샤 박물관은 보다 특정한 主題를 택하여 이 지역의 요란한 쟁점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가장 유명한 것은 “쥐—인간이 초래한 해악”이라는 제목의 쥐에 관한 전시였다. 도시 특유의 빈곤한 생활여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쥐로 인하여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 展示에서는 쥐가 도배하게 된 이유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효과, 그리고 그 제거 방법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⁹⁾ 이러한 활동들은 또한 뉴욕시박물관의 활동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¹⁰⁾

이제까지 미국에 있는 두 마을박물관의 概念과 機能에 대하여 간략한 예를 들어 보았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새로운 박물관의 발전경향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점은 일반 대중의 참여라는 사실이다. 傳統的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의 전시나 활동이 보통 대중매체나 혹은 다른 공공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다. 박물관은 학교의 수업시간과 여러 대상그룹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는 관람객들이 와 주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왔다 하더라도 박물관의 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기 마련인 것이다.

參與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의 關與를 의미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소위 전통적인 박물관의 경우로, 전시의 계획과 전시 내용의 결정에 일반 대중을 참가시키는 가능성이다. 브레멘에 있는 위버제(Übersee) 박물관의 사업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박물관은 현재 그리스에 있는 작은 섬인 카르파토스(Karpathos)에 관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위버제박물관의 몇몇 研究員들이

9) C. Marsh, “A Neighborhood Museum that works”, *Museum News* 47, 1968, 2, 11~16; J.R. Kinard and E. Nighbert, “The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Museum* 24, 1972, 2, 103~109 참조.

10) D. Kinnane, “Ein Museum für Geschichte und soziale Probleme,” *UNESCO-Dients* 8, 1983, 9~13 참조.

준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브레멘의 주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기획기간은 4년으로써 4년이라는 기간은 남너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흥미를 느끼는 主題를 선택하고, 전시에 대비하여 그 주제에 대해 연구 정리하여 가다듬으며, 아무때나 또한 가능한한 자주 카르파토스를 여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그 主題는 이 섬지역의 건축이나 전래되는 민간요법, 혹은 종교축제여도 좋고, 예를 들면 카르파토스의 꽃과 같이 自然史 분야이어도 무방하다. 이 섬의 주민들은 독일인 그룹과 더불어 전시회를 함께 기획한 그룹의 하나이다. 이 전시회는 우선 이 섬에서 먼저 개막된 이후 브레멘에서 전시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카르파토스 출신 사람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를 순회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의 生活에 박물관을 融和시킬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스미소니언연구소가 애나코샤마을박물관의 경우에서 하였던듯이, 또는 브룩클린 아동박물관이 뮤제에서 하였던듯이 박물관이 밖으로 나가 都市 内外의 다른 지역에 혹은 다른 소도시에 分館을 설치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때때로 지역사회기관으로서의 개념과 기능을 떠맡을 수도 있다. 그 소장품과 관계없는 음악공연이나 연극공연, 혹은 단체의 집회 같은 유사한 行事들이 박물관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박물관은 좀더 많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活動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기관과는 다른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박물관에는 항상 展示가 있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차원적인 立體物들이 전시된다는 점이다.¹¹⁾

參與라는 것은 박물관의 活動에 대중이 간여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 참여자들이 그들의 構想과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애나코샤마을박물관은 그와 같은 면이 실행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박물관의 초대 관장인 존 키나드는 이 점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마을博物館들은 이웃주민의 삶을 포용할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까지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가장 절박한 필요들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大衆들인 것이다.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매체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들과 여러 지역대리기관들이 제기한 우선적인 문제들을 반영하게 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¹²⁾

“마을博物館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歷史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한 지역사회의 改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資產과 負債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박물관에 의하여 제기된다. 박물관은 구성원들의 문제와 욕구, 희망, 공포, 고난, 이상 등에 초점을 두고있다 하겠

11) C. Marsh, "A Neighborhood Museum that works," *Museum News* 47, 1968, 11~16, 16 참조.

12) J.R. Kinard and E. Nighbert, "The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Museum* 24, 1972, 2, 103~109 참조.

다.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박물관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박물관이 항상 학술적인 방식으로 답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적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박물관직원들은 이 박물관을 그 지역사회 고유의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대안들을 제기해 주고,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를 제공해 주며, 훈련과 기회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분명히 活氣넘치는 기관이다. 이웃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박물관에서 제공되며, 긴급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켜 주기도 한다. 대중들로 하여금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고, 무대공연과 시각예술 행사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과 지역 고고학으로부터 鳥類學과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¹³⁾

마지막으로 이같은 말들과 관련하여 볼 때, 엘 헤즈키아(L. Hezekiah)가 밝힌 바와 같이 “뮤제의 역할은 다만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박물관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다.”¹⁴⁾ 이 모든 문제들은 1969년 뉴욕에서 열렸던 마을박물관에 대한 세미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바 있다.¹⁵⁾

박물관의 活動에 일반 대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적인 흐름은 또한 같은 필자가 사용한 “대중을 위한 博物館”이란 用語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用語에는 박물관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이 매우 명백하게 표명되어 있다. 미놈(MINOM)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비로소 최근에 이르러서야 논의되게 되었다. (MINOM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의 생각을 기꺼이 고려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博物館은 전형적인 형태의 博物館 活動에 심취한 사람들이 만나는 場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징들은 또한 박물관으로 하여금 그 수장품과 관계없는 여러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場所가 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 이제까지 논의해 온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은 어떠한 目標을 지향하고 있는가? 첫째는 박물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의한 봉사 of 혜택을 누릴 수 없는 社會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국의 事例들에서처럼 소수그룹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社會의 特定部分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시되어 왔던 여러 부류의 대중들을 고려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3) J.R. Kinard, “Intermediaries between the Museum and the Community”, *The Museum in the Service of Man Today and Tomorrow*. 『제 9회 ICOM총회 論文集』, Paris 1972, 151~156, 155, 156 참조.

14) L. Hezekiah, “Reflections on MUSE”, *Museum News* 50, 1972, 9, 12~14, 12 참조.

15) E. Dennis, “Seminar on Neighborhood Museums”, *Museum News* 48, 1970, 5, 13~19; M.W. Robbins, “The Neighborhood and Museum”, *Curator* 14, 1971, 1, 63~68 참조.

궁극적인 目的은 항상 自信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자신의 위치를 定立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간에 각 대상그룹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란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회의의 주제가 “博物館의 活動과 社會 生活과의 融和”가 아니라 “博物館의 活動과 地域사회 生活과의 融和”로 선정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하겠다.

지역사회를 위한 박물관에 대한 논의란 어귀에서의 지역사회란 市나 郡과 같이 行政的인 단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地理的인 단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지역사회란 말에 다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나아가 정치적 지역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좀더 막연하게는 공동이익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또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지역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라는 말에 대한 定義가 매우 난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 박물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대상그룹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다.

자기위치의 定立과정이란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표현능력 뿐 아니라 자각을 기르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있어서, 자각과 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지역사회는 공동의 책임감을 확립시키게 될 것이고, 관계된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先行조건인 자신감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 33, A.O. Konare를 참고할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博物館의 活動과 地域사회 生活과의 融和”를 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主目的이다. 지역사회가 그 자체의 目標을 항상 뚜렷하게 볼 수 있거나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특정한 목적은 해당 지역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같은 과제들이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개념이나 견해를 강요하는 “문화적 식민주의”나 “교육적 제국주의”로 誤導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結論 즉, “미래에서의 박물관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침”을 밝히기 이전에, 몇 가지 예를 들므로써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보다 진전된 모습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미국에 새로이 설립된 두 박물관과 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에서 열렸던 회의, 그리고 사회 안에서 또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ICOM의 수정된 규정 등은 지대한 자극을 주게 되었다. 특히 멕시코시티에 소재한 카사 드 뮤세오(Casa de Museo) 박물관은 산티아고의 회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박물관으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한 인상적인 事例라 하겠다.

이 국립인류학박물관은 걸출한 수장품과 독특한 박물관건물, 그리고 오로지 교육적인 전시개념을 교수한다는 면에서 유명하였다. 그런데 이 박물관의 관리들은 멕시코시티의 주민 중 일정 부분만이

박물관을 관람하러 온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그 당시 이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마리오 바스케즈(Mario Vasquez)씨는 박물관 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국립인류학박물관이 그 구내에서 나와 수도권내의 미개발지역중의 한 구역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分館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 박물관은 국립박물관과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그 지역주민들과 협조하여 계획되고 유지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새 건물에서 전시될, 국립박물관과는 전혀 다른 展示主題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카사 드 뮤제오박물관의 관리들이 지역주민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이 특이한 도시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매우 독특한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그것은 리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장소였으며, 또한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을 공보해 주는 전시를 유치하는 박물관이 되었다. 이제 박물관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카사 드 뮤제오박물관은 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나아가 주변을 돌아보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깨우치려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강변의 계곡에 형성된 빈민가 저너머로 시선을 고양시키게 해주려고 한다. 이 박물관은 공동의 관심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조국과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자기구역에 관련하여 自己의 위치를 발견하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現在를 평가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¹⁶⁾

카사 드 뮤제오박물관의 실험에서 촉진되어 멕시코에 여러 개의 지역박물관이 개설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수도 외곽에 위치하면서 유사한 이념들을 구현하고자 시도하였다. 더구나 학교박물관들이 설립되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市구역의 歷史와 그들의 고향, 그리고 市의 경제적 구조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상설 전시를 준비하였다.¹⁷⁾

니카라과아의 경우처럼 다른 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도 유사한 事例들이 진전되었다. 멕시코에서 지역박물관을 설치하게 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인하여 이 中南美국가에서도 전국적인 지역사회박물관의 조직계획이 상정되었다. 1981년 이 계획하의 첫번째 案이었던 Camoapa시 박물관이 세워졌다. 이 박물관은 공중위생과 같은 市의 문제를 展示로 다루었으며, 또한 市의 歷史에 대한 전시물도 내놓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환경박물관운동의 경우를 통해서 박물관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다루기 이전에, 본론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文化的인 삶의 다른 한가지 부문에 관하여 서독의 예를 들면서 거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한 도시의 여러 구역이나 교외에서 조직되는 文化

16) C.O. Garcia, "The Casa del Museo, Mexico City", *Museum* 27, 1975, 2, 71~7, 76 참조.

17) Y.R. Galicia, "The Museum and the Community", M. Bryant, *Museums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Policies and Problems*, Austir 1977, 29~40 참조.

18) M. Papageorge, "Camoapa: A Community Experiment", *Museum News* 60, 1982, 6, 5~8 참조.

活動의 형태이다. 이같은 활동에서 한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전시회를 여는 것이며, 비록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설전시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活動들이 박물관을 지역사회의 生活과 融和시키려는 운동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보다 작은 지역에 한정된 서독의 文化活動들이 곧 “문화적 민주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문화기관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지난 60년대의 학생운동과 특별의회반대운동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활동들은 그들이 화제로 삼음으로써 크게 진작되었다. 만일 전통적인 문화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일정부분을 배제시키고 있는 장벽을 스스로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자체가 문화적인 삶을 창출해 내어야만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문화”라는 구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으로써 사용되곤 한다.

새로운 형태의 郷土博物館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에서 조직되는 文化活動도 두 가지 기본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한정된 지역, 대부분의 경우 도심지역의 주민들이 文化機關의 계획과 유지에 참여한다. 둘째, 이 기관은 전체 인구의 의사소통장소로서, 따라서 모든 사회부문과 연령 그룹, 그리고 여러 민족간의 融和를 위한 장소로서 봉사한다.¹⁹⁾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게 되면, 창조적인 일을 하고 강연과 토론, 음악과 연극 공연을 준비할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써, 그 社會的 行爲가 향상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들에는 식당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 기관을 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진작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재개발계획과 관계되어 부상된 문제들, 그 지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량형의 문제등 지역적인 문제들이 이 文化機關에 마련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간의 토론에서 심각하게 고려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의 市史를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건간에 사람들은 공통관심사와 문제를 의식하게 되며, 따라서 서로간의 유대감이 생기게 된다. 만일 사람들이 역사, 특히 지역 역사나 소위 일상생활의 역사를 다루어 본다면 보다 쉽게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²⁰⁾ 비판가들은 반론을 제시하고 싶어 하고, “역사가”들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므로,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비판이나 역사연구의 결과가 전시회를 통하여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애나코샤마을박물관이 행한 근린지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애나코샤 연구계획에서는 주민 자신들이 자료를 편찬하였다. 그들은 역사를 과거의 사건만으로서 이해하지 않았으며, 現在와 未來에 대한 과거사건의 重要성과 意味를 인식하게 되었다.²¹⁾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서독의 지역사회 중심체들은 그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역사의 研究에 할애하고 있다.

19) I. Hübner, *Kulturzentren*, Weinheim 1981, 90~96.

20) D. Hoffmann, “Geschichtsbewußtsein-Identitätsfindung”, M. Ristau, *Identität durch Geschichte*, Marburg 1985, 23~31 참조: *Dokumentation 12 (Stadtkulturarbeit) der Kulturpolitischen Gesellschaft*, 77, 87.

21) J.R. Kinard and E. Nighbert, “The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Museum* 24, 1972, 2, 103~109, 106 참조; A. Kuhn and G. Schneider, *Geschichte lernen im Museum*, Düsseldorf 1978과 비교할 것.

서독에서는 특히 독일인으로 구성된 마을들을 대표하는 연맹인 “Deutscher städtetag”이 역사연구를 장려한 이래로 역사연구를 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나온 참고서류들이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984년 브레멘의 의회진물에서 “보존단체—역사연구단체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란 제목의 전시를 열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역사회기관에서의 文化活動이 지역사회주민과의 협조하에 적극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브레멘의 한 구역인 볼트머스—하우젠(Woltmershausen)의 한 단체가 이 전시회에서 지역의 삶의 질을 망쳐 놓을 수도 있는 위협적인 공업계획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하였다. 제시된 서류 중에는 브레멘의회가 이미 승인한 바 있는, 문제가 되는 결정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을 기화로 정치인들은 전시중의 일부를 삭제하였고, 그렇게 되자 참가한 모든 단체들이 단결하여 전시회 자체를 해체시키면서 다른 모든 부분들 까지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민주적인 문화기관들이 쉽사리 정치적인 논쟁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러한 면을 보지 않으려 하지만 어떤 형태의 文化活動이건간에 社會的이고 政治的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다음에 인용하고자 하는 도심의 지역사회기관의 문화활동에 대한 언급은 서독의 노동자계급에 관하여 서술된 것으로서 마을박물관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文化活動을 政治的, 社會的 측면이나 運動들과 별개의 것으로 격리시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들은 다만 文化活動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들은 모든 문화행위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文化活動에 관여된 사람들은 그들의 작업에서 도시지역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지적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도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²²⁾

이제까지는 주로 도심지역에서의 박물관의 발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발전과정이 전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것은 이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발전되도록 유도한 개념과 마을박물관의 창시자들이 따랐던 개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인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은 바로 環境博物館이다.

이 새로운 발전과정에 관한 기록은 여러 문헌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박물관”(Museum)이란 잡지의 제148호에서는 “環境博物館”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²³⁾ 환경박물관을 창설시킨 이념은 7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형태를 지닌 최초의 박물관은 프랑스의 르 크루소-몽소-레-미네(Le Creusot-Montceau-les-Mines)에서 설립되었다. “환경박물관”이란 용어의 창시자인 휴 드 바린쎄(Hugues de Varine)에 의하면 그 당시 환경박물관의 두 가지 변형이 발전되고 있었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그의 글 중 환경박물관에 대한 부분이다.

22) *Dokumente 13 (Arbeiter-Kultur-Heute) der Kulturpolitischen Gesellschaft*, 31.

23) *Museum* 148, Paris 1985.

24) H. de Varine, “A Grass-Roots Revolution: Community Initiative in Culture”, *Culture (UNESCO)* 5:

“현재 環境博物館에는 두 가지 변형이 존재한다. 그것은 종종 기존 문화체계의 배경으로서의 자연환경과 문화사를 수용하고 있는, 개선된 형식의 野外博物館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립 공원과 지방공원의 기안자들은 이 방식을 계속 채택하여 왔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적들은 이러한 방식에 개의치 않고 있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환경박물관 혹은 지역사회환경 박물관은 그 원형을 프랑스의 르 크루소-몽소-레-미네에 있는 꼬뮤노메 위르벤느(Communauté urbaine) 박물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위의 방식과는 그 원칙과 실제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완전하고도 동질적인 지역권, 대개는 도심지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소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발전에 있어서 主體가 될 수 있도록 도와하고자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박물관에서는 주민들이 배우이고, 일상생활의 여러 問題들이 행위의 主題이며, 집터와 건축물, 물체들과 두서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교혼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요소들이다.”²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환경박물관”이란 용어에서는 박물관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그는 環境博物館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環境博物館이란 어떤 정해진 지역사회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하나의 總體로서 간주하고 바로 이 포괄적인 유산을 과학적, 교육적,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文化的인 目標를 지향하게 하며, 그것에 대해 研究하고 또한 더욱 啓發시키고자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환경박물관이란 그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므로써 직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環境博物館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체계, 그것도 구체적인 상황 자체에 내재된 체계를 이용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점이 환경박물관으로 하여금 자유 자재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²⁵⁾

쥘리앵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는 環境博物館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실제로 창시한 사람으로서, 환경박물관에 대하여 몇 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제 1980년에 출판된 책 중에 실린 것으로서 가장 최근에 그가 내린 정의 중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는 거울이며,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과, 시간과 世代의 연속성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모색하는 거울이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방문객들에게 내세우는 거울로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다 잘 이해되고, 그들의 산업과 관습, 특성 등이 존중되게 될 수

1978, 1, 62~86, 85 참조.

25) H. de Varine, “A Grass-Roots Revolution: Community Initiative in Culture”, *Culture (UNESCO)* 5, 1978, 1, 62~86, 85 참조.

있을 것이다. 그것은 自然과 人間의 表現이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환경 안에 위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自然의 모습을 보여 줄 뿐 아니라 傳統과 産業的인 要因들로 인하여 변형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또한 그것은 곧 시간의 表現이다. 그곳에서는 인류의 등장 이전으로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전 과정을 거슬러 오게 되며 마침내는 인간의 現在에 이르기까지가 설명되게 된다.”²⁶⁾

오늘날에는 많은 박물관들이 환경박물관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박물관들을 하나의 일반적인 용어로 통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Museum*지의 특집권에 글을 쓴 몇몇 필자들은 일부 사람들이 “환경박물관”이란 용어를 그 본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개념을 인식시키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박물관의 개념에서 기본적인 원칙들 중의 하나는 특정지역 주민의 참여와, 그 지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과 함께 그 지방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일관된 계획 아래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박물관들이 성취해야 되는 업무와 그것들을 존립시킨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련성은 이 박물관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휴 드 바린같은 필자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규정된 지침들을 환경박물관 발전의 주요 동기로서 신중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까지 살펴 보았듯이 칠레의 회의는 마을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도 거듭 언급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또한 환경박물관과 마을박물관의 밀접한 상관성을 가리켜 준다. 이 두 박물관의 형태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Museum*”지의 특집에 실렸던 마을박물관에 관한 글인 존 킨나드의 “사회변화의 촉매로서의 마을박물관”이란 글의 대부분이 환경박물관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²⁷⁾ 이 두 종류의 박물관의 유사성이 “지역사회환경박물관”이라고 불리우는 르 크루소 환경박물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박물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해 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지역사회환경박물관인 오프-보세(Haute-Beauce)가 건립되었던 퀘벡주에 있는 한 환경박물관이 그것이다. 또한 예는 몬트리올에서 실행되었던 실험이며, 또 하나는 브라질의 경우로서 이곳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融和된 환경박물관학”이란 말이 꽤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전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발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박한 사실은 최근에 휴 드 바린이 말하였듯이 “博物館業은 사회에 봉사하는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박물관 재건의 문제를 심각하고도 긴급한 과제로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서 불어사용권의 나라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칭 미놈(MINOM : 세계적인 새 박물관학운동, Mouvement International pour la Nouvelle Museologie)

26) G.H. Rivière, “The Ecomuseum-an Evolutive Definition”, *Museum* 148, 1985, 182~183, 182 참조.

27) J.R. Kinard, *Museum* 148, 1985, 217~223 참조.

28) R. Rivard, “Ecomuseums in Quebec”, *Museum* 148, 1985, 202~205 참조; F. de Camargoe Almeida-Moro, “São Christóvão: a District Ecomuseum”, *Museum* 148, 1985, 237~241 참조.

29) H. de Varine, “The Word and beyond”, *Museum* 148, 1985, 148 참조.

이라고 하는 이 “새 박물관학”운동은 1986년 초 이래로 ICOM에 가입되었다. 이 박물관도 또한 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회의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박물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³⁰⁾라고 한 성명을 인용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반이 된 動機들은 1983년 영국에서 개최된 총회와 이후 1984년 케벡에서 열렸던 “환경박물관과 새로운 박물관학”이란 제목하에 제 1차 국제워크샵들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그리고 198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제 2차 국제워크샵에서 이 새로운 운동은 마침내 실행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케벡선언: 새 博物館學의 기본원칙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세계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물관학도 감정과 보존, 그리고 교육과 같은 傳統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보다 광범위하고 진취적인 문제들을 모색해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박물관의 활동이 인간과 물질 환경간의 融和를 위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고 또한 일반 대중들이 박물관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학은 점점 더 다른 학문들과 제휴하고, 모든 문화활동에서 사용되는 현대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현대적인 경영방법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새로운 박물관학은 과거 문화의 產物인 유물들을 보존하고, 현대의 所望과 현대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產物들을 지켜주고 있으며, 환경박물관학과, 지역사회박물관학,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적극적인 박물관학을 포용하면서 사회 발전의 추진력을 반영하고, 그같은 추진력을 미래의 계획과 결합시키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 박물관운동은 창조적인 상상력과 건설적인 현실주의, 그리고 전 인류공동체가 후원하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 자신과 서로에 대해 배우고, 비판적인 능력을 계발하며, 그 자신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세계를 건립하고자 하는 관심을 표명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³¹⁾

여기에서는 두 가지 면이 특히 강조된다. 첫째는 특정한 인간환경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대한 박물관의 불충분한 반응이고, 둘째는 관람객이나 대중의 참여를 용납하지 않는 박물관 자체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구조이다. 중요한 사실은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비교하여 박물관의 사회적인 의무, 즉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 중요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을박물관이 형성되었을 때, 혹은 서독의 民族學博物館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박물관의 개념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논의가 생겼을 때와 똑같은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MINOM운동을 실행했던

30) F. Hubert, “Ecomuseums in France: Contradictions and Distortions”, *Museum* 148, 1985, 186~190, 190 참조.

31) P. Mayrand, “The New Museology Proclaimed”, *Museum* 148, 1985, 200~201, 201 참조.

사람들도 이러한 관련성을 주지하고 있다.

논의를 마감하기 전에 박물관 운동의 또 다른 변형 하나를 거론하고자 한다. 비록 관련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청에 의해 실행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서 바로 인도의 지역과학센터(the District Science Centers)가 그것이다. 인도에는 국립과학박물관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방갈로어(Bangalore), 봄베이, 캘커타에 대규모의 탁월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뉴델리에도 또 하나를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거대한 과학센터들은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산시켰다. 이것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全世界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서비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개념을 채택하였고, 멀리 떨어진 미개발지역에 소규모의 지역과학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것이 서벵갈(Bengal) 지방의 푸룰리아(Purulia)에 건립되게 되었다.

이 작업의 근간이 되었던 이념은 박물관이 도움을 제공하므로써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푸룰리아지역은 원래 산림지대였으나 산림들은 목재로 팔기 위해서 벌목되었다. 본래 사냥꾼들이었던 이 지역의 토속부족들은 더 이상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이 새로운 조건에 그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인도의 기존정책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과학박물관이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책을 발견해야만 했다. 연구원들이 그곳으로 파견되어 상황을 조사하고, 예를 들면 관계시설의 개선이나 바이오가스(biogas)식물의 경작 등 적합한 기술들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이제는 조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지역과학센터가 일선으로 나서게 되었고, 발전의 중계역할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이다.³²⁾

그리고 과학센터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푸룰리아 소재의 박물관에서는 여러 마을들에 다용도적인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공간들은 교실이나 전시회의 장소로써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동안 인도에 더욱 많은 과학박물관들이 세워졌고, 이와 같은 박물관운동의 변형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가 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1985년 로메(Lomé)에 있는 국제아프리카기구가 개최한 “서아프리카의 지역박물관에 관한 심포지움”이란 회의에서 이와 유사한 이념들이 논의되었다. 환경박물관에 관한 “*Museum*”지의 특집호에 코나레(A.O. Konaré)가 쓴 “사헬(Sahel)의 환경박물관: 어떤 계획”이란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은 서아프리카에서 적용가능한 박물관의 발전방식을 보여 준다.

“사헬지역의 環境博物館 活動의 최종 目的은 이 지역주민들의 비판적인 정신과 판단력을 다 시 불붙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부여하고, 개인적인 진취성에

32) *Proceedings of the Indo-FRG Workshop on Science Museums in Rural Development*, Purulia, December 2~7, 1983, Calcutta, 1983.

대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이 자신들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環境博物館은 사헬주민들이 그들의 環境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주민들은 자기인식과 자각, 그리고 자진하여 행동하려는 책임감 넘치는 태도 등과 같이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³³⁾

박물관의 活動과 지역사회의 生活을 融和시키고자 하는 여러가지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고 나서 과연 일반적이고도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라는 用語가 분명한 형태의 대상그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는 예비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따라도 좋을만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보다 향상된 敎育事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수업시간 뿐 아니라 모든 대상 그룹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박물관과 학교와의 관계는 일정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에는 상호 협조가 요구된다. 박물관은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전시회와 활동방향을 결정하며, 학교는 박물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결정하게 된다. 브레멘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효율성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므로써 박물관과 학교간의 협조가 교육관청이 제시한 지침의 수준을 훨씬 웃돌게까지 진전된 바 있다.³⁴⁾

그러나 비정규교육 즉, 平生敎育에서의 박물관의 역할도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방면의 경우 박물관의 잠재력은 완전히 이용될 수가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그러나 만일 박물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개방하고 주민들의 生活과 活動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生活에 融和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을 취하므로써만이, 박물관은 그 구조와 작업 방식에 있어서 民主化 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며, 문제점들을 제기하게 되며,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박물관의 活動이 지역사회의 生活과 融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ICOM정관에 규정된 바 박물관의 定義를 인용하자면, 지역사회는 물론 “社會를 위하여, 그리고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奉仕하게” 되는 것이다.

33) A.O. Konaré, *Museum* 148, 1985, 230~236 참조.

34) C. Kuhlmann, “Schulstufen und fächerübergreifende Handreichungen am Beispiel der Museumspädagogik” *Lernentwicklung und Schulpraxis*, Berlin, 1983, 112~126 참조.